

# 내신 반영비율 단계적 확대

### 교육부·대학교협 합의 ... '올 50% 반영' 철회

교육부와 한국대학교협회는 4일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대학교협 회장단은 이날 서울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조찬 회담을 가진 뒤 학생부 반영비율을 연차 확대해 나간다는 등 내용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배포했다.

공동 발표문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학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도록 노력하며, 학생부 중심의 2008학년도 대입 제도를 지키 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와 회장단은 "수시 모집의 경우 많은 대학들이 이미 학생부 중심으로 전형을 실시해 왔다"며 정시 모집에서도 학생부 반영비율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상호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올해 내신 반영

비율 확대 문제와 관련, "발표문에 대한 합의 원칙이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다. 지금 당장 50%를 실현하기가 어려운 대학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 올해 내신비율 확대에 대한 '유연한' 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합의에 비해 교육부가 올해 내신 반영비율 50% 원칙 고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올해부터 연차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내신 반영비율 문제에 연계된 행·재정적 제재 방침도 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오늘 모임은 대학과 교육부가 머지 입시 정책을 놓고 대

결하는 모습으로 비쳐져, 수험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만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내신 반영비율과 행·재정적 제재 연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교협 회장인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오늘 모임 의미는 2008학년도 입시 문제의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가 첫 번째이고 그러기 위해 대학측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합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88고속도 확장 돌연 취소

### 건교부 '경제성 낮다'며 ... 철도 놓기로 보성~무안 임성역간 철도도 무기 연기

광주~대구를 연결하는 국내 유일의 왕복 2차선 고속도로인 88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공사가 중단됐다.

건교부는 최근 '국가기간교통망 수정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88고속도로와 보성~무안 임성역간 철도를 비효율 투자구간으로 판정, 공사중단과 함께 사업을 무기한 연기했다.

건교부는 당초 88고속도로 2차선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토지조사와 감점 평가까지 들어갔으나 이번 확장 계획 철회로 인해 오락가락 행적이라는 비난을 받게됐다. 또 국내 유일할 2차선 고속도로로 교통사

고 치사율이 전국 고속도로 중 가장 높은 88고속도로의 안전 문제도 해결되지 못했다.

건교부는 88고속도로와 철도를 경쟁 노선으로 설정,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고속도로 보다는 광주~대구 동서횡단철도 건설이 경제성과 효율성에 우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보성~임성역간 철도는 목표~광양간 고속도로 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난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4차선 확장 계획을 수립, 공역시와 인접 도 단위 구간인 ▲광주 고서분기점~담양간 16km ▲대구 옥포분기점~대구 성

산간 12km 등의 구간을 4~6차선으로 지난해 말 각각 개통시켰다.

나머지 143km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최근 실시설계와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을 완료했다. 이어 올 초부터 토지조사와 보상을 위한 감점평가에 들어간 상태며 공사는 1, 2단계로 나눠 오는 2016년 완공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건교부가 최근 도로와 철도 결합투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비용편익비(B/C, 1 이상 사업 타당)가 88고속도로는 0.78에 불과하지만 철도는 1.1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건교부는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를 무기한 연기하고, 광주~대구간 철도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 가짜 기부금 영수증 '칼 빼 든다'

### 정부 대책마련 착수

정부가 종교·교육·자선단체 등 비영리 공익법인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부금 수령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차단하는 대책을 포함한 기부 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세계 개관연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부 문화 활성

화 방안은 크게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기부받는 법인의 투명성 제고, 기부금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인프라 개선 등 3가지 측면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이달 중 공청회 개최 등의 견수법 과정을 거친 뒤 올해 세계개관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실제 공익법인에 기부금을 낸 만큼 공제를 받고 이러한 기부금이 사회공헌활동에 쓰이도록 투명성을 높여야만 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故 조중욱 기자 영정 들고... 4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KBS에서 열린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 희생자 조중욱 KBS 기자 가족 4명의 영결식에서 가족의 영정이 생전에 몸담았던 사회부로 향하고 있다.

# 경제성 타령에 내밀리는 숙원사업

### 감사원, 광주~완도 고속도로도 연기 권고

감사원이 4일 광주~완도 고속도로를 비롯해 상주~안동, 안동~영덕, 통영~거제 등 4개 고속도로 신설사업에 대해 사업타당성이 매우 낮아 사업시기를 조정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균형 발전과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차원에서 건설되는 도로를 단순히 경제성만을 놓고 판단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지난해 실시한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4일 발표하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대도시권 혼잡도로 사업체계, 도로 유지와 관리체계, 교통정보운영 등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광주~완도 등 4개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에 고속도로와 병행하는 일반국도의 확충으로 교통수요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5조5천37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계속 추진되고 있다면서 사업시기 조정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 빛의만평

- 김중두

기본종은 아침 한번 맛보자!

# 전북도 하계 U대회 포기

### 광주시와 유치경쟁 피해

광주시와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경쟁을 벌였던 전북도가 대회 유치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하계U대회 유치를 위한 국내 자치단체간 경쟁을 펼칠 수 있게됐다.

전북도는 "2013년 하계U대회 유치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 김성호 법무장관 來光

### 김성호 법무장관이 5일 초도 순시차 광주를 방문한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고등검찰청을 방문, 법무부 산하 기관장 및 국중돈 광주지방변호사회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을 면담할 계획이다. 이어 김 장관은 광주시 광산구 고통동 소재 광주소년원(고용정보산업학교)을 방문한 뒤 진주로 떠날 예정이다.

# 조선시대 '독도방어책' 시험 치러

### 정조왕, 신하들에 ... 정약용 1등

조선시대 정조왕이 직접 신하들에게 울릉도·독도에 대한 방어책을 묻는 시험을 치렀고, 정약용이 1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선우영준 '한국령 독도 일본인정 추진위원회' 준비위원장에 따르면 정조는 1789년 윤 5월에 대신들을 대상으로 영토의 방어문제를 논하는 진시(親試)를 치렀다.

정조는 "울릉도와 손죽도(楸竹島·독도)는 오래도

록 무인도로 버려졌고, 여인과 무당은 아득히 옛 군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중략) 모두 대책을 지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약용은 "울릉도와 손죽도 등을 빈섬으로 방치하는 것은 좋은 계획이 아니다. 울릉도는 옛날 우산국으로 신라 지중왕이 정복하였던 곳이다. 화살대나 담비기죽과 기이한 나무 등이 제주도보다 많고, 수로(물길)가 일본과 가까이 인접해 있다"고 답했다.

선우영준 준비위원장은 "전남 여수에 손죽도가 있지만 섬은 무인도였으나 현 황대남/매령당/2인월을 대상으로 영토의 방어문제를 논하는 진시(親試)를 치렀다"며 "손죽도가 지금의 독도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 산행안내

7월 7일(토)

- ▲거북이테마산악회 울릉도~거제도 1박2일(토) 7월7일(토) 05시30분 여주체육관(한대백화점,문예회관경주점)출발 T.011-604-3851
- ▲광주도산악회 김현 황학산 7월7일(토) 07시 광주역(문예회관경주점)출발 http://cafe.daum.net/gwangjudo T.011-603-4267, 011-634-2044
- ▲광주한길산악회 울릉도 가거도 특선산 1박2일 7월7일(토) 05시30분 광주역 출발 http://cafe.empas.com/hiangil T.222-3253,010-7619-0559
- 7월 8일(일)
- ▲한울산악회 거창 규원산-가거도 7월8일(일) 07시30분 국제호텔건너편광주은행 앞(문예회관경주점)출발 ※대여카: 3371, 011-635-9329
- ▲광주자연보존산악회 지리산 산신봉 7월8일(일) 07시 여주체육관(문예회관경주점)출발 ※대여카: 3371, 011-635-9329
- ▲광주비두리산악회 지리산 수정봉-구룡폭포 7월8일(일) 07시30분 광주역(문예회

광주출발 ※다음카페:광주비두리산악회 T.011-640-0871

▲광주거북이산악회 보현 내연산 7월8일(일) 06시 여주체육관(문예회관경주점)출발 http://cafe.daum.net/kwjht T.017-602-0077, 011-602-3263

▲광주산악회 중흥 거제시 가라산-명산 7월8일(일) 07시 대인광장(문예회관경주점)출발 T.019-499-1403, 011-9608-3357

▲울산산악회 호산 태호산 수락계곡 7월8일(일) 08시 광주역(문예회관경주점)출발 ※다음카페:광주출발산악회 T.011-608-7627, 011-635-5031

▲남부산악회 지리산 뚝대봉, 한신계곡 7월8일(일) 07시 방림파출소 앞 출발 ※준비:중식 및 산행장비 T.011-609-3172

▲울타리산악회 영도 보건소 산신봉 7월8일(일) 06시50분 백운동 국제호텔 옆 출발 ※다음카페:울타리산악회 (해약바람) T.010-5500-3598

▲광주산악회 영도 보건소 격자봉 7월8일(일) 07시 여주체육관(문예회관경주점)출발 T.365-3612, 011-649-3612

▲광주메타리산악회 김현 황학산 7월8일(일) 07시 시청 앞 출발 http://cafe.daum.net/mkyw T.011-601-2894

▲광주알프스산악회 중북계곡 노봉산(화양계곡) 7월8일(일) 07시30분 대인광장(문예회관경주점)출발 T.262-1460, 010-4616-1460

▲요산회 전북 완양산 7월8일(일) 07시 광주역 출발 T.016-611-1509

▲산회회원 서울 도봉산(한강-지문봉-우이령) 7월8일(일) 07시 광주역 앞 출발 ※다음카페:산회회원 T.011-619-4609

7월 10일(화)

- ▲팔성산악회 경남 진정 옥성봉(복사봉) 7월10일(화) 07시40분 중앙출발(문예회관, 문예회관경주점)출발 ※다음카페:팔성산악회 T.011-605-3477
- ▲광주산행스캐치 구인 내소산 7월10일(화) 08시 여주체육관(문예회관경주점)출발 T.018-617-0470
- ▲광천산악회 거창 금원산(유양정폭포) 7월10일(화) 07시40분 광천파출소(지리산)출발 T.010-3617-9496
- 7월 11일(수)
- ▲정북산악회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계곡 영선산 7월11일(수) 08시 교원공제회(문예회관경주점)출발 T.011-616-5917
- 7월 14일(토)
- ▲진행백두산악회 화순 한천 현운산 휴양림(대사:유방연(예인학사) 7월14일(토) 08시 진평동 해태마루(유양정) 문봉현, 출발 ※다음카페:광주산악회 T.010-662-1556
- ▲광주산악회 영도 보건소 격자봉 오대산 7월14일(토) 05시 문예회관(문예회관경주점)출발 T.010-7171-2682
- ▲평생산악회 영도 보건소 격자봉(혜수동)출발 7월14일(토) 07시 조대야대 앞 출발 T.011-625-4222
- ▲팔성산악회 울릉도 독도 정양정 백운전 주왕산 2박3일 7월14일(토) 06시30분 백운전(문예회관경주점)출발 ※다음카페:팔성산악회 T.011-605-3477
- 7월 15일(일)
- ▲충남산악회 변방 문화와 수려함 7월15일(일) 07시 광주역(문예회관경주점)출발 ※다음카페:충남산악회 T.010-6246-7231, 011-605-5034
- ▲광주백운산악회 충남 논산 마량산 7월15일(일) 08시 백운동 현대아파트(문예회관경주점)출발 T.011-640-2434
- ▲다음카페:(사)오산오수산악회(충천)산악-남양지 7월15일(일) 07시 현대평화문(지리산)출발(광주역,문예회관경주점)출발 T.011-620-2002
- 8월 3일(일)
- ▲광주도산악회(중)백두산(3박4일) 8월3일(일) 13시 광주공항출발 ※예약: 7월14일(45명 한정) http://cafe.daum.net/gwangjudo T.011-608-4267, 011-634-2044
- ▲요산회(문예회관경주점)출발 T.016-611-1509
- 9월 5일(수)
- ▲광주거북이산악회 백두산 4박5일 특선산행 9월5일(수)~9월9일(일) ※접수마감:7월30일 http://cafe.daum.net/kwjht T.017-602-0077, 011-602-3263
- 9월 7일(금)
- ▲한울산악회 백두산 9월7일(금)~9월10일(일) 3박4일 ※7월22일까지 신청수 마감 T.011-645-3371

##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 광고접수안내

구인·영업·모임·모집  
시설금융·매입·부동산  
매매·임대·전세·분양

◆광주은행 : 001-107-228160  
◆동 협 : 617-01-108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 ☎(062)220-0524  
• 직통: (062)227-9600  
• FAX:227-9500

상속한정승인공고

맘 김용배(300425-1650611)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제3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시간번호: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년 7월 4일  
공고기간:2007. 7. 5~2007. 9. 4  
연 락 처:서울 광진구 광장동 삼성아파트 1-806 김영수(016-346-3855)

## 크로바공인중개사

☎432-4560/018-690-3110  
(금호동 CBS빌딩 일신명지상가)

◆토지 매도

- 화순군 도곡면 천안리 온천지구 내 모빌부지 633평 / 매8968천500만원(무인도매)
- 송파구 중곡동(지하) 200평 2층연도루(전원주택,민원없음)/매8975만원
- 나주시 노안면 용신리 관리지역 전675평 2차로점(공청,청고착함)/매 8971만원
- 광산구 동림동 (하남,임곡)도로교점 주거지역 대지 300평/매79만원(전원주택)
- 담양군 원성면 중림리 마을관리지역 임야 3,700평(3m도로점,부지도없음) 현 황대남/매8972만원
- 광산구 산거동 관리지역 전480평 도로점 (청고,공청착함)매 8972만원

◆상가, 건물 매도

- 금호동 CBS빌 대로면 아파트상가 2층30평 / 매8,300만원(화원주택,광고효과높음)
- 금호2지구 대로면 아파트상가 1층10평 / 매192천500만원(보,500만원/70만2천)
- 금호동 부영아파트 부근 4차로교차로 대지85평 건평150평3층건물 보충금8,000만원/매 220만원/매 4억2천만원(음1억5천만원포함)
- 문남동 주왕산 2.4천여 아파트관리지역 위미부근 대지70평 건평124평 매11억5천만 (보2억2천500만원/700만)
- 월곡동 소양사 뒤 2차로 점 1층 상가주택 대지62평건평36평 / 매 1억4천만원

◆고급레스토랑/가든식당 매도(담당공인중개사 010-2767-0200)

- 두암동 두암타운부근 고급레스토랑 대지134평,건평288평(지하-지상층)매16억2천만(착용중)
- 담양군 낙원동 광주부근 일주도로점 가든식당 대530평(일부전포함)건평60평 매도가 5억5천만원

◆기타 매물 다량보유 ◆

- 광주시내 아파트및반원전 점수판매
- 광주시내 및 인근토지 건물 점수판매
- 부동산 매도매수 수시 상담환영
- ❖귀하의 소중한 재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